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참조2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정용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47
----------	------

발의연월일: 2023년 09월 일

발의자: 정용한, 구재평, 김장권, 안광림,
조정식, 서희경, 추선미, 박경희,
이덕수, 이군수, 안극수, 박주윤,
강상태, 박은미, 이영경(이상 15명)

1. 제안이유

- 지난 8월 일어난 ‘분당구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사망자 2명, 부상자 12명(중상 11명, 경상 1명)의 피해가 발생. 그러나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 지원 및 예방책은 전무하여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예방책 및 지원책 마련을 주문함.

2. 주요내용

- 최근 ‘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등 잇단 흉악범죄로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과 지원책 등이 전무해 막대한 병원비를 희생자가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짐. 이에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원책을 촉구하고 성남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함.

3. 결의문(안): 별도 붙임

4. 기타사항

○ 이송기관: 국회, 보건복지부, 경기도

○ 붙임: 1.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발의자(찬성자) 서명부 1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예방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지난 8월 3일 오후 5시경 서현동에서 가해자 최원중이 보행자들을 향해 차량을 몰고 돌진 후 차에서 흥기를 들고 내려 행인에게 마구 휘둘러 시민 2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폭행사건 등으로 무고한 시민이 숨을 거두는 등 상상할 수 없는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글' 게재가 유행처럼 번져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경찰력 등 공권력이 대규모 동원되게 하는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와 가족들은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모자라 치료를 위한 병원비로 수천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까지 발생한다.

이른바 '당하고 싶지 않은 범죄'임에도 가족이 스스로 병원비와 같은 지원책을 찾아다녀야 하는 점, 가해자와의 까마득한 피해 배상소송에 있어 아무런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는 점 등 성남시민으로서 깊은 상실감을 느낀다.

이 사례가 많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정부의 지급보증까지 이루어졌지만, 충분한 액수는 아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보다 가해자의 인권이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현실,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부당한 감형, 거의 없다시피 한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은 어쩌면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이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희생자와 또 다른 피해자를 위하여 이후 유사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자와 가족들이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죄 없는 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에 대해 즉각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하라!

하나. '이상동기 범죄'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 경기도 차원의 예방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는 막대한 병원비로 곤란을 겪는 피해자를 위해 '중복 지급 금지 원칙'을 개정해 중복 지급을 가능하게 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이상동기 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해당 범죄 피해에 관한 구체적인 법이 부재한 가운데 이번 일을 계기로 예방책 및 지원책 등이 마련되어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는 유족들과 언제 있을지 모를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는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2023. 09.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